

1장 선교적 교회

선교가 중심이 되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다. 이는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선한 행실로 사는 것이다. 자신이 세상의 선교사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 나는 4-3 우리 교실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반 자폐인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가기를 바란다. 7명의 한부모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진정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조금이라도 예수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그 생명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길 이 시간 기도한다.

6장 멤버케어

선교사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사를 케어하는 것은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케어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멤버케어는 한국교회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텐데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 같다.

15장 선교헌신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시장을 볼 때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만 진정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선교사역이 아닌 것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이 헌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참된 헌신은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헌신도를 알 수 있다. 동료 선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선교사의 사역이 겉으로 화려할지라도 제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역 이전에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본다. 사역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32장 국내 이주민 선교

주변에 이주민 선교를 하는 간사님을 통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전도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고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34장 교육선교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족이 문제이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며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일수록 열악하다. 교사 부족, 교과서 부족, 학습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선교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선교의 사역을 물려줄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난한 어린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공립학교를 통해 교육 선교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미리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선교지의 공립학교에서 교사로서 사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학교도 좋다. 이민자 자녀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무슬림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적고 사역의 결과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 사람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 사역을 할 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조금씩 교육 선교에 대한 관심은 생기지만 크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 선교발표를 할 때 말라위를 했었는데 정말 교육선교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